



ESG와 시민의 행동

1 주차. 첫 만남과 강의 소개

상허교양대학 송지호 교수



평어, 모험의 언어



교수님

자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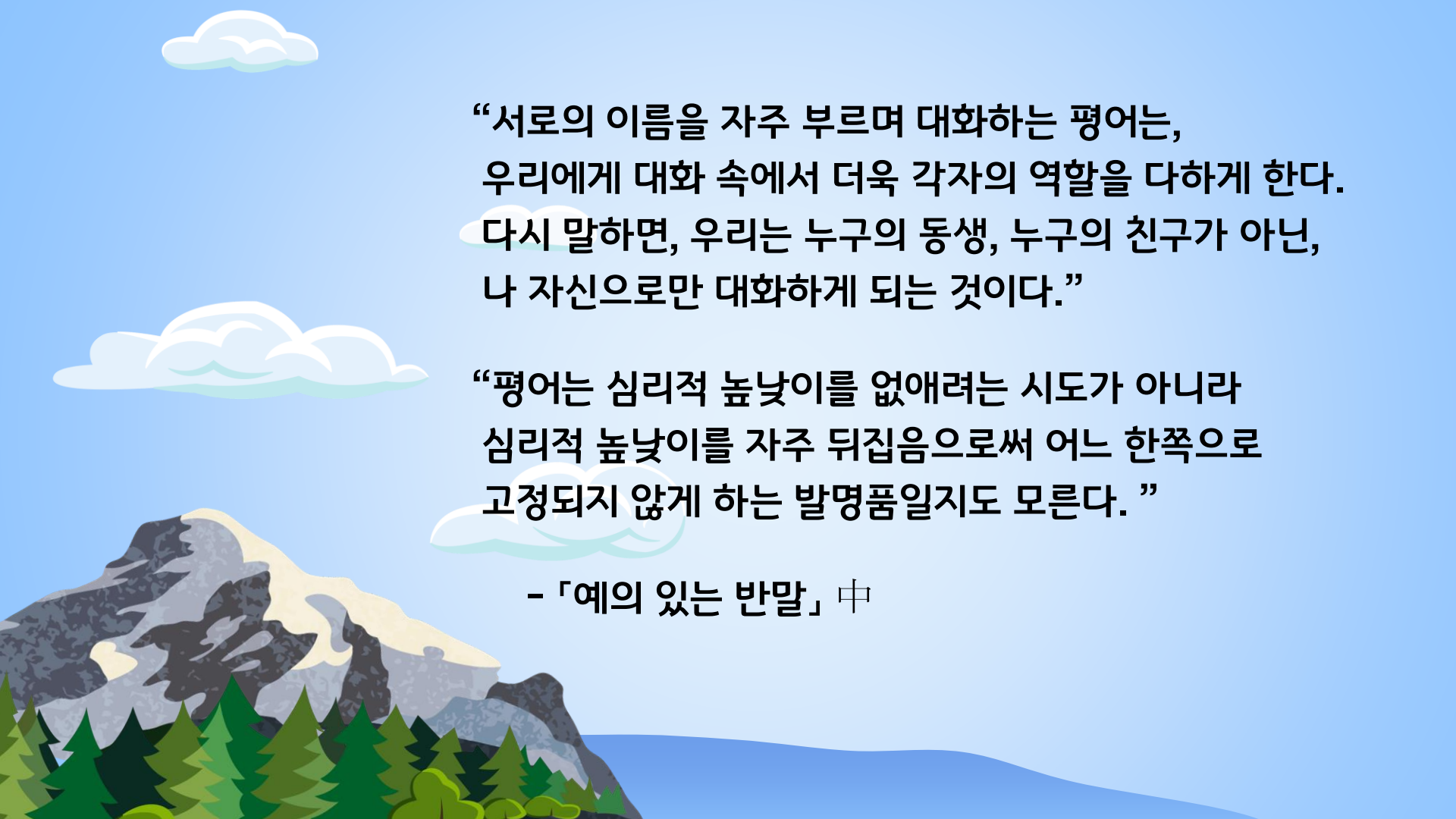


학우님

누끼영마

선배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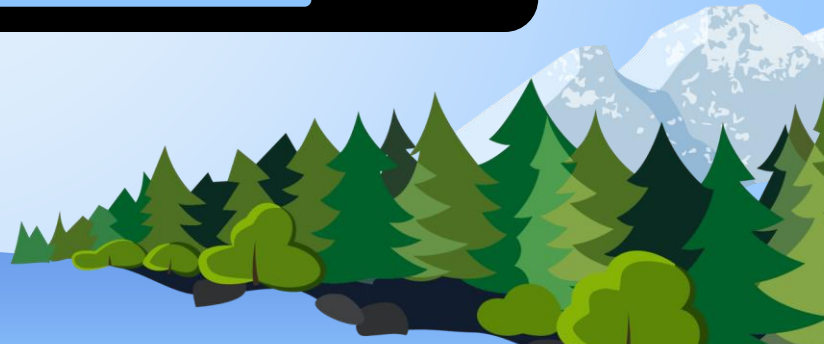
사장님



“서로의 이름을 자주 부르며 대화하는 평어는,
우리에게 대화 속에서 더욱 각자의 역할을 다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동생, 누구의 친구가 아닌,
나 자신으로만 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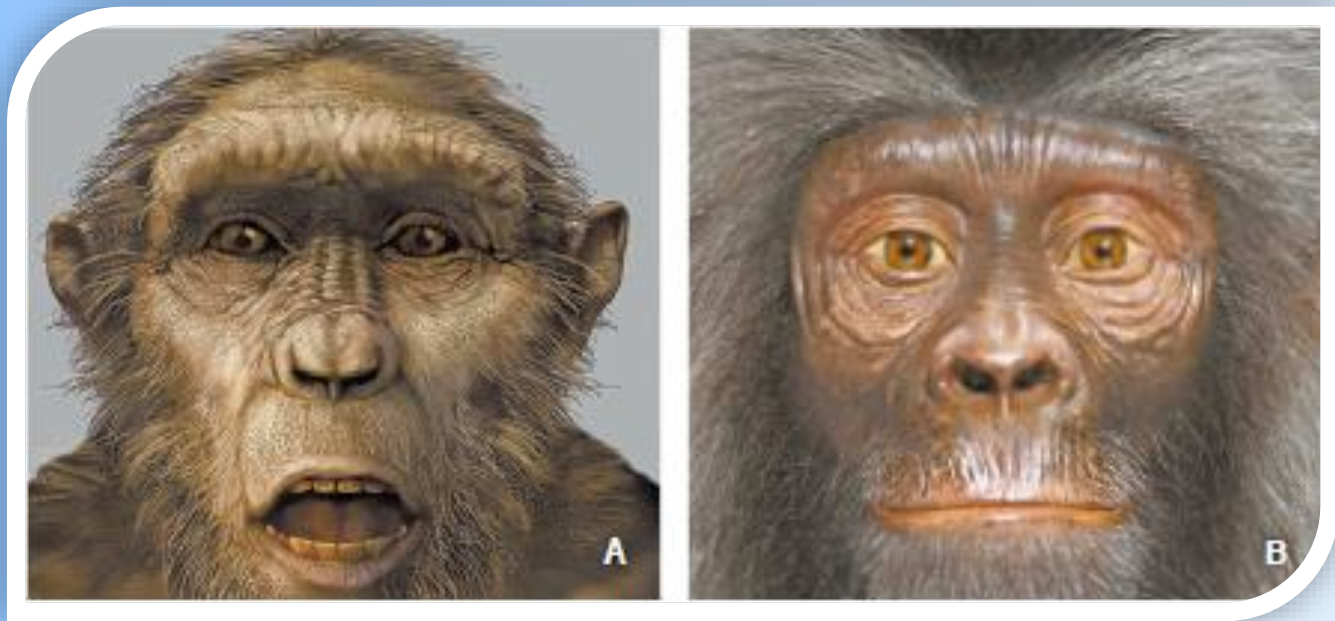
“평어는 심리적 높낮이를 없애려는 시도가 아니라
심리적 높낮이를 자주 뒤집음으로써 어느 한쪽으로
고정되지 않게 하는 발명품일지도 모른다.”

- 「예의 있는 반말」 中



호명과 환대





700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의 상상도.

(이미지 출처: 중앙SUNDAY / 2016.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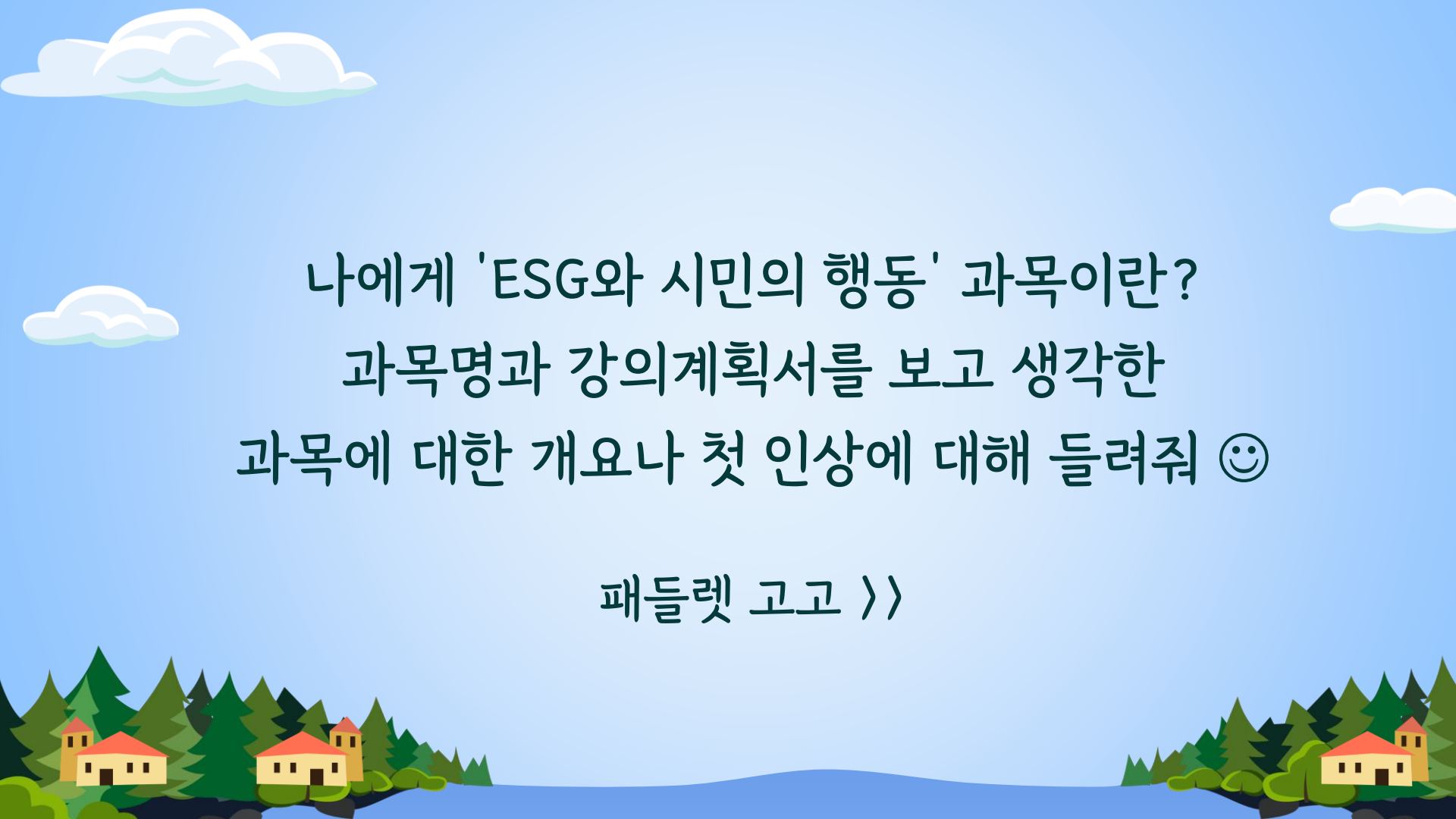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그림책 「내가 우리 집에 온 날」)

**패들렛
입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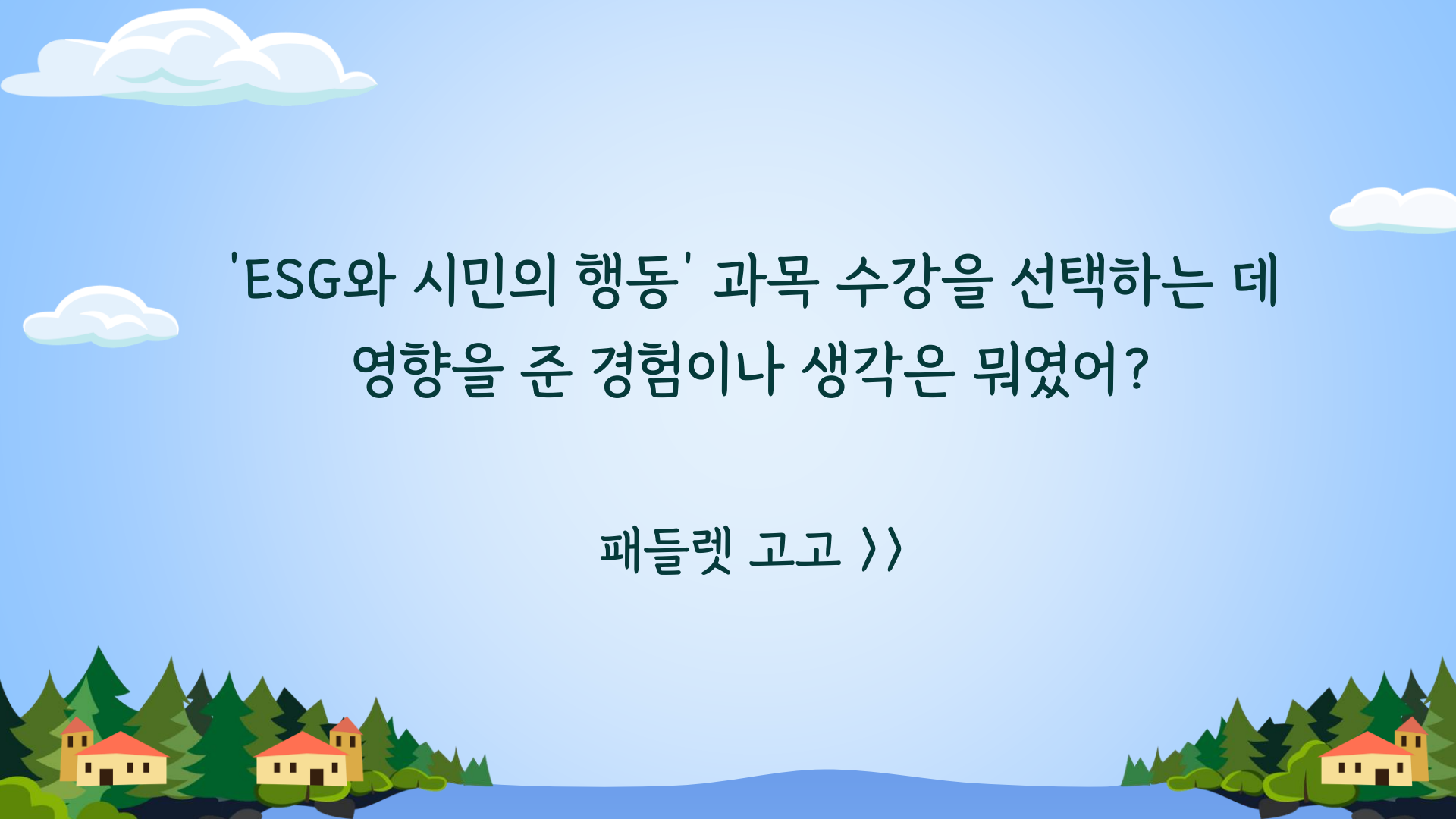


**나의 생각을
표현해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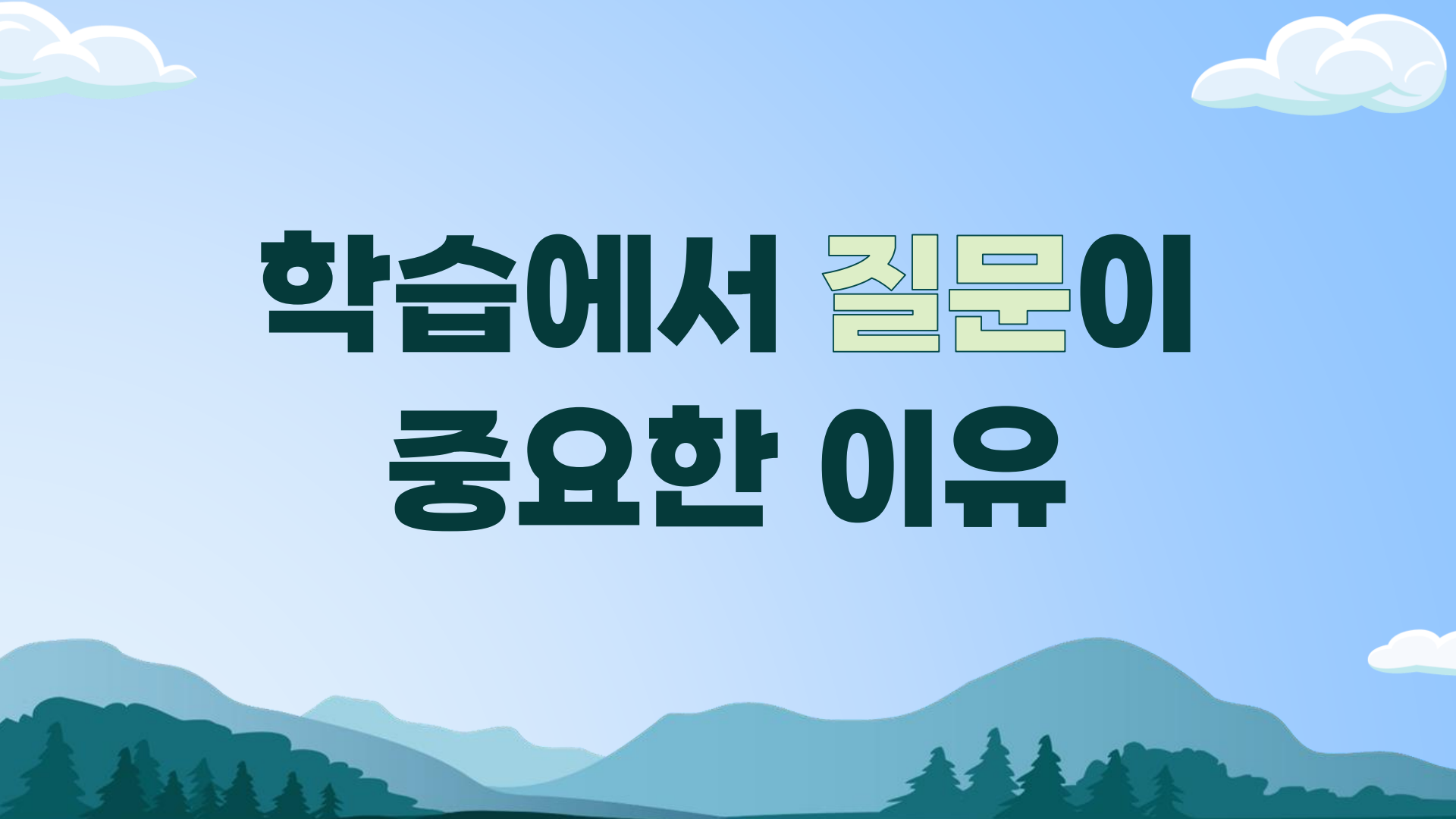
나에게 'ESG와 시민의 행동' 과목이란?
과목명과 강의계획서를 보고 생각한
과목에 대한 개요나 첫 인상에 대해 들려줘 😊

패들렛 고고 >>



'ESG와 시민의 행동' 과목 수강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준 경험이나 생각은 뭐였어?

패들렛 고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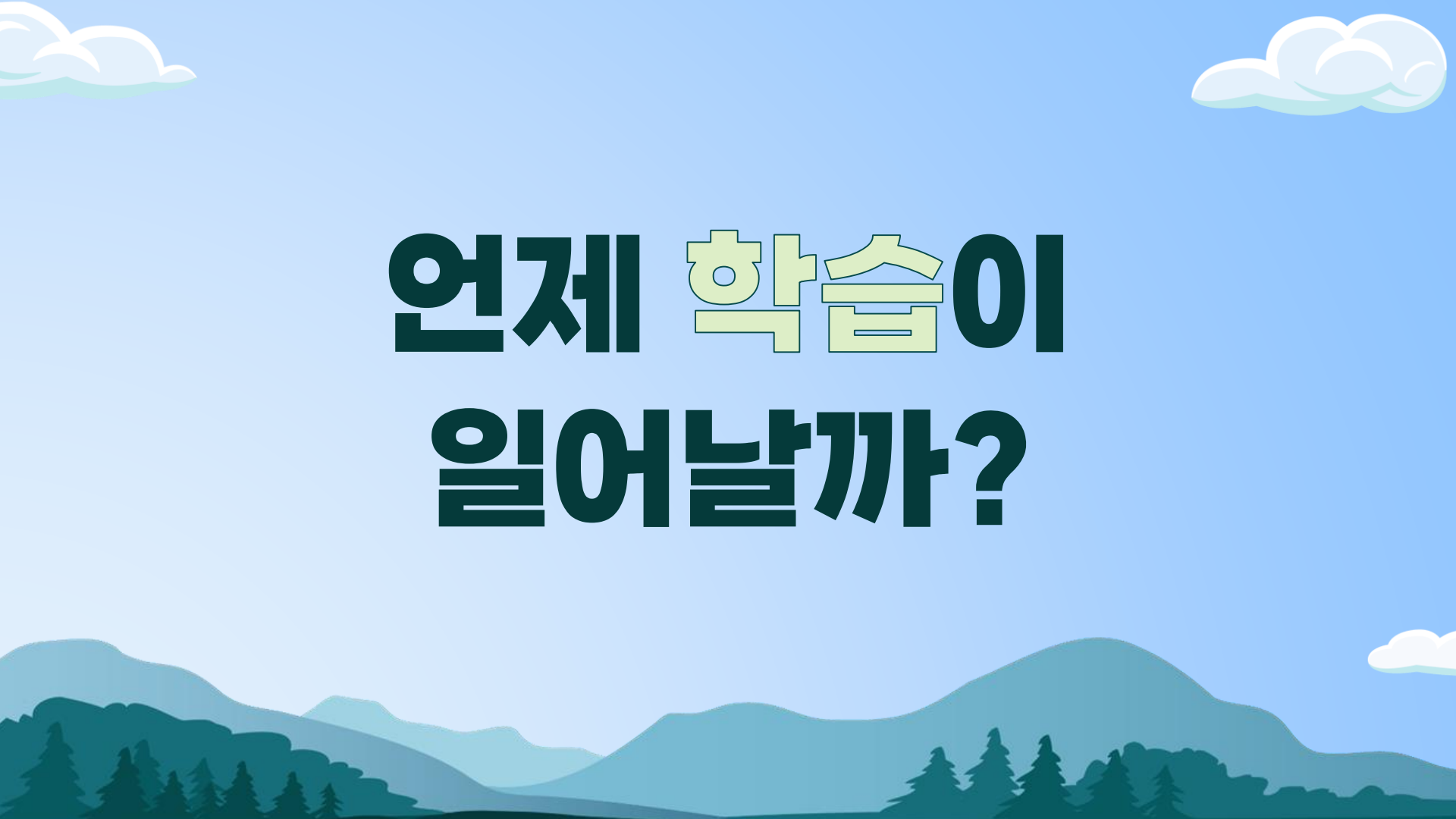
학습에서 **질문**이 중요한 이유

학습을 위해
좋은 질문이 왜 중요할까?

학습을 위해
동료가 왜 중요할까?

패들렛 고고 >>



The background features a stylized landscape. At the bottom, there are dark green silhouettes of evergreen trees. Behind them are rolling hills and mountains in various shades of blue and teal. The sky is a light blue gradient, with a few white, fluffy clouds scattered across it, including one in the top left, one in the top right, and a small one on the right side.

**언제 학습이
일어날까?**

수가타 미트라, '구름 속의 학교'

인도 빈민가 벽에 컴퓨터 한 대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실험.

아이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지만,

스스로 사용법을 익히고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어 사용을 위해 스스로 웹 사이트를 찾아 학습하기도 하였다.

어른의 개입을 배제할 때, 아이들 집단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조직적 학습환경이다.



함께 떠나볼까?

2~6주차

시민 경험,
사회혁신과
ESG의 이해

7~9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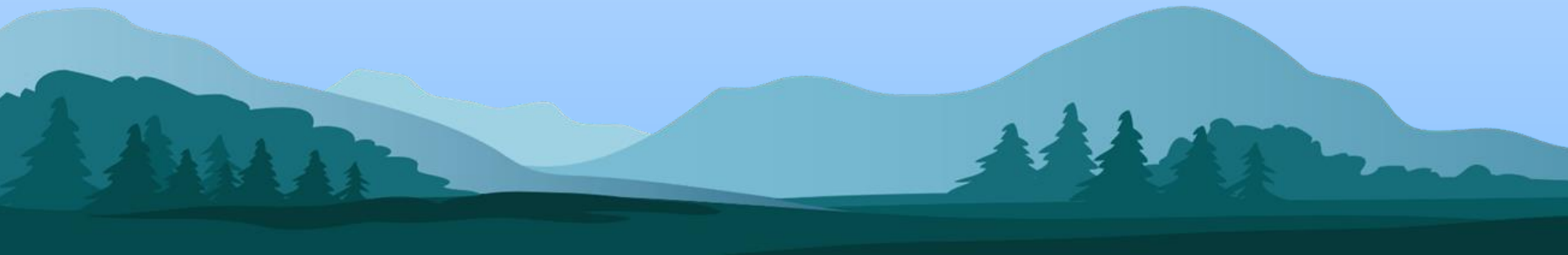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

10~14주차

프로젝트
기획 설계
및 실행

15주차

성찰 및
상호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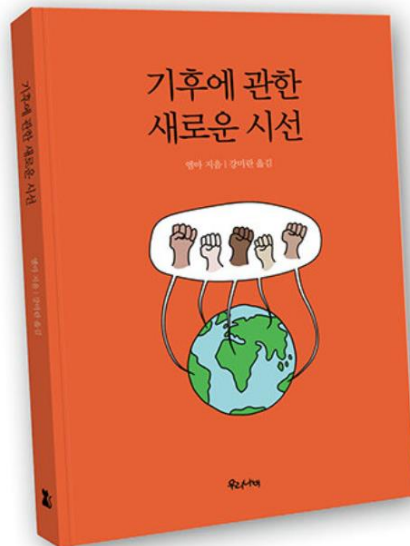


새로운 시선과 질문을 품어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왜 정부는 온난화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

뭔가 해 볼 수는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기후에 관한
새로운 시선

엠마 지움 | 강미란 옮김



출장 가서 생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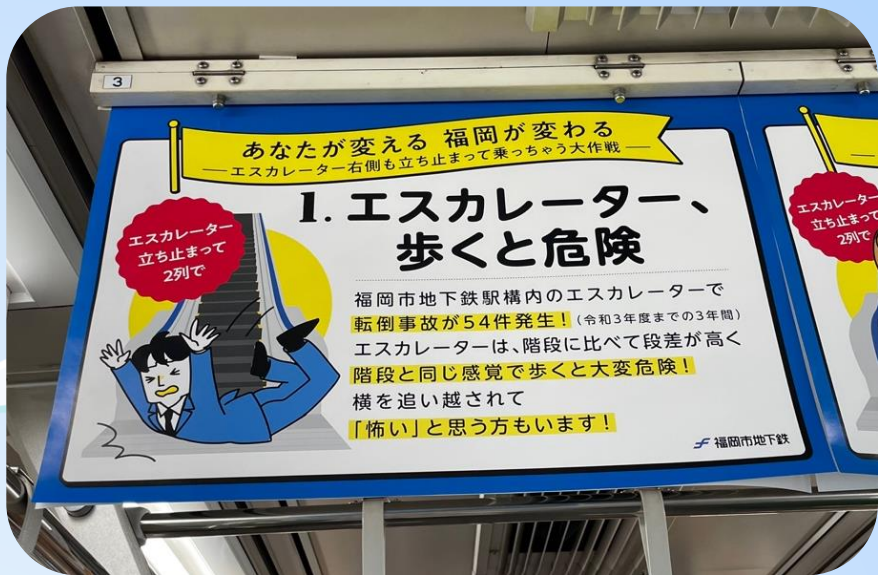
(사진 출처: <https://otegarulife.com/315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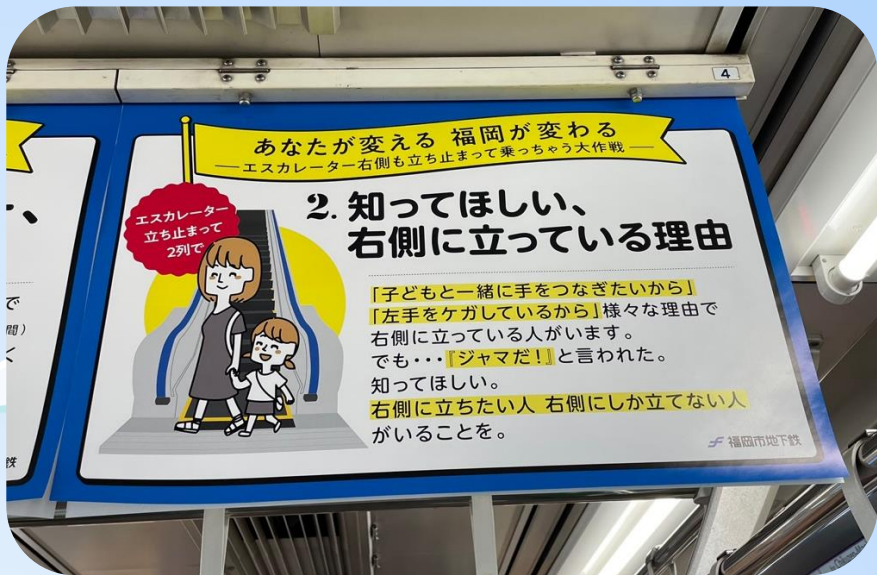
(사진 출처: <https://kawato.typepad.jp/ostomycafe>)



(사진 출처: <https://otegarulife.com/315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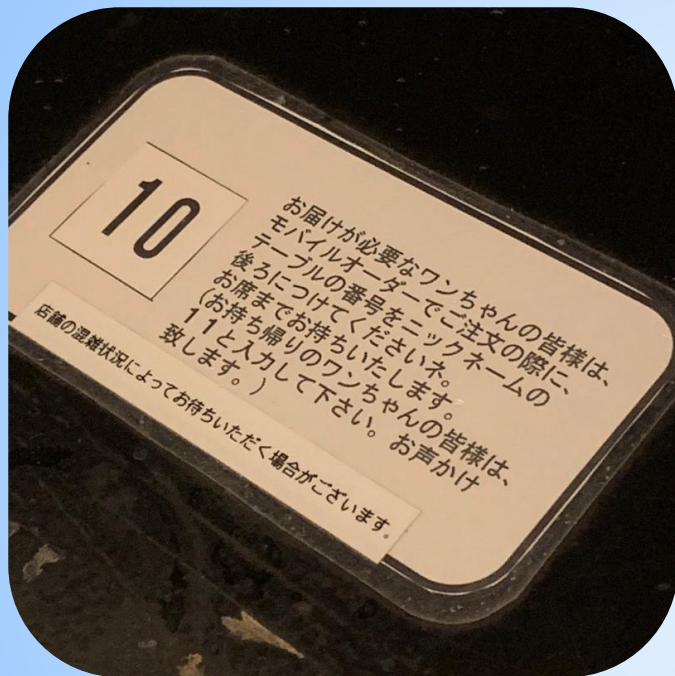


1. 에스컬레이터, 걸으면 위험해요
후쿠오카시 지하철역 구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54건 발생! (2021년까지 3년간)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에 비해 단차가
높기 때문에 계단과 같은 감각으로
걸으면 매우 위험해요!
옆을 지나쳐 가면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2. 알아줬으면, 오른쪽에 서있는 이유
‘아이랑 같이 손 잡고 싶어서’
‘왼손을 다쳐서’ 등 여러 이유로
오른쪽에 서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해되잖아!’라는 말을
듣습니다.
알아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서고 싶은 사람, 오른쪽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반려견과 함께 와있어서
자리로 음료를 가져다 드리길 원하는 경우에는
사이렌오더로 주문할 때,
테이블 번호를 닉네임 뒤에 붙여주세요~!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반려견과 함께 와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11을 입력해 주세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매장이 혼잡할 때에는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

1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대체 과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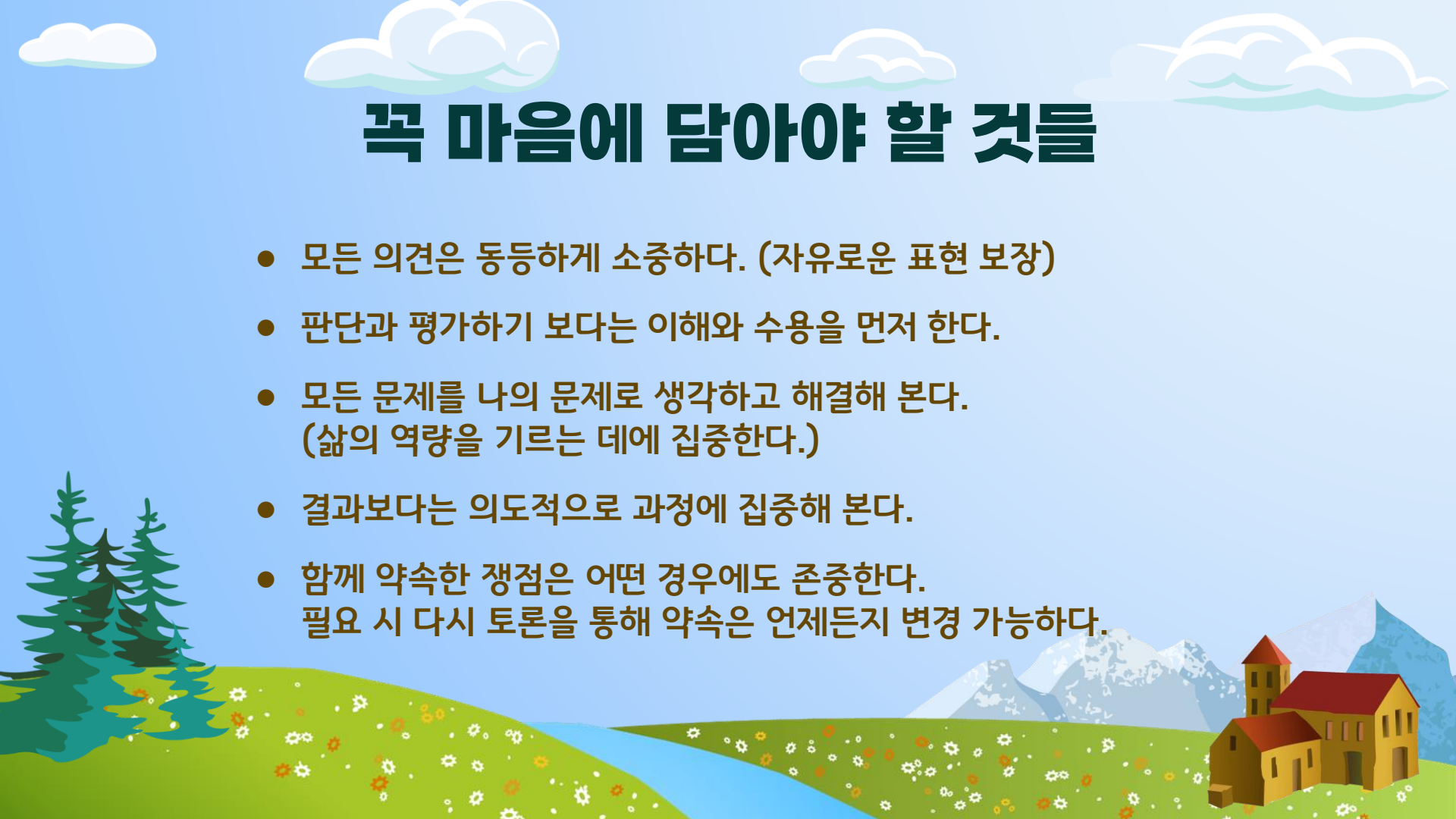
2

실습 포함 3회 초과 결석 시 논패스 처리됨
(2회 지각=1회 결석)

3

실습 후 정해진 기간 내 꼭 실습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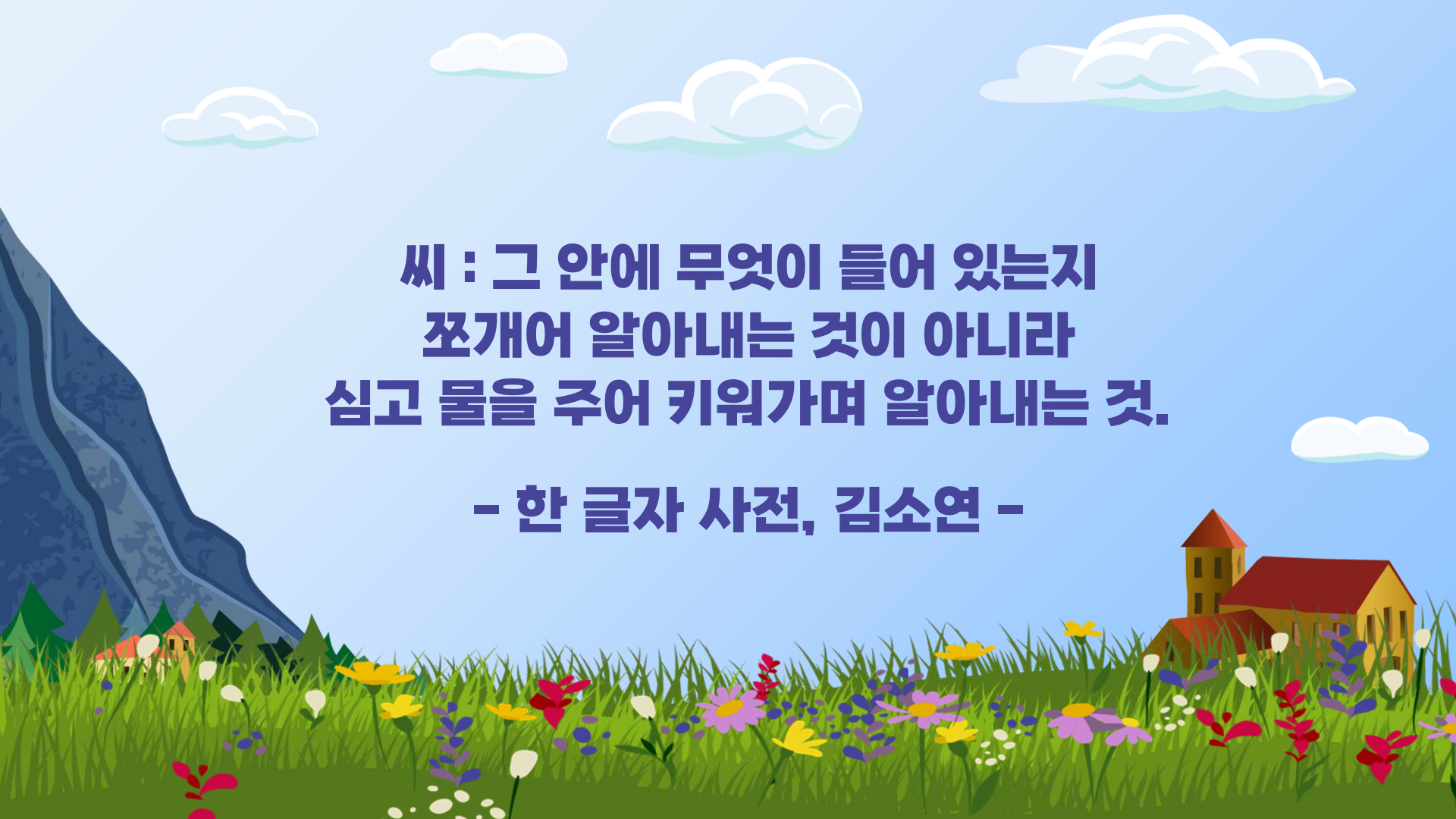
꼭 마음에 답아야 할 것들

-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소중하다. (자유로운 표현 보장)
- 판단과 평가하기 보다는 이해와 수용을 먼저 한다.
-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해 본다.
(삶의 역량을 기르는 데에 집중한다.)
- 결과보다는 의도적으로 과정에 집중해 본다.
- 함께 약속한 쟁점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한다.
필요 시 다시 토론을 통해 약속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질문들을 환영해 😊





**씨 :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쫓개어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심고 물을 주어 키워가며 알아내는 것.**

- 한 글자 사전, 김소연 -

다음 주에 만나!

